

진정한 애국자와 농민상담소장

김 용 승

파주시 농촌지도소 교하면 농민상담소장

True Patriots and the Extension Educator

Yong Seung Kim

Director, Extension Office, Kyoha-Myun

오늘도 강건너 북녘땅 개풍군 들녘을 바라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너무 믿기지 않은 일들이 강 바로 건너 북한 땅에서 생기지 않는가?

내가 북한에 가보지 못하고는 말할 수 없지만, 며칠전 KBS 일요 Special Program의 북한 인민들이 식량난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연일의 구심을 품고 있었다. 보도에 의하면 씬바귀를 밀가루에 버무려 죽을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다하지 않는가? 왜 하필 쓰디쓴 씬바귀인가? 북한 들녘에는 썩도 없는가?

우리의 1960년대 보리고개 시절보다 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화성에 우주선이 가는 우주 과학시대에 이 무슨 소리인가? 차라리 진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나는 파주시 농촌지도소 교하면 농민상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의 식량문제에 관심이 많다. 내가 근무하는 교하면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은 대한민국이요 반대쪽은 북한이다. 소리를 지르면 들릴만한 거리요 북한의 대남방송이 끊이질 않는다.

그런데 어떨까? 북쪽의 정반대쪽인 남한 우리 교하면민은 너무 잘 먹고 잘살며 너무 사치스럽지 않은가? 그 한 예로 집집마다 자가용이 준비하게 있고 도로에는 사철탕, 삼계탕, 꽃계탕 아니면 각종 레저 시설을 갖춘 뱀장어구이 등 호화 음식점이 여기저기 즐지어 있고 자유로변 산속에는 호텔(Love)이 성업중이라 한다.

교하면은 1천 5백 Ha의 논이 있다. 지도소에

서 다수확 품종을 재배토록 권하면 농민들은 오로지 추청벼(아끼바리) 재배만을 고집한다. 그 이유는 밥맛 좋은 추청벼가 최고란다. 이제 다수확보다는 농약을 사용치 않은 저공해 쌀이려야 한단다. 지금 강건너 이북에는 식량이 모자라서 굶어 죽는다는데 같은 동포로서 이걸 너무 사치가 아닌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름에 흐르는 최고 쌀만 먹고 살았는가?

불과 30년전 1960년대 우리도 굶주리었다. 그러나, 녹색혁명이 일어나서 통일벼를 성공시키어 식량을 자급했고, 새마을 운동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닌가? 우리는 아직 홍청망청할 때가 아니다.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어야 한다.

지난 6월 상순경 우리 교하면에는 벼 물바구미(북한에서는 물코끼리라 부른다)가 발생하여 벼잎이 하얗게 죽어가고 있을 때 농민들은 우리가 생산한 우수한 농약으로 그 피해를 말끔히 없앴는데 강건너 북녘들에도 분명히 벼 물바구미가 발생하여 피해가 클 텐데 저들은 정말 철저히 방제하였을까? 아마도 농약이 없어서 적기방제가 불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금년에도 벼의 작황이 좋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국가체제가 민주국가나 공산국가나 문제이다. 그 이유는 민주국가는 자기노력의 여하에 따라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그 한 예를 들어보자. 우리 교하면은 부추 재

배가 많아(252농가에 60.5Ha) 농가소득을 2천만원~3천만원(연간) 올린다. 내가 1993년 교하면에 왔을 때 농민들은 재래식 시설에서 재래식 방법으로 부추를 재배하고 있었다. 즉 노지 재배는 비가 많이 오면 부추가 연약하게 자라 썩게 되고 한해가 오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여 농민들은 늘 고생만 하였지 실질 소득이 적었다.

그래서 행정, 지도, 농협 3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하면 연다산 1리에 작목반을 조직하여 부추 재배단지를 만들게 되었다. 우선 열심히 토론한 결과 부족 house 시설을 파주시에서, 재배기술은 지도소서, 판매는 농협에서 분담키로 하고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지금은 부추재배 house가 36Ha 설치되었고 농가소득도 요즈음은 매일(토요일 제외) 농가당 10~30만원씩 올리고 있다.

어느 날 부추 재배 농가가 사무실에 찾아왔다.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피로하고 힘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는 3천평의 부추 농사를 짓는데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 부추를 벤다 한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웠다. 새벽 2시라면 온 국민들이 잠들어 있을 무렵. 그것도 사방이 고요하고 적막하여 무섭게 느낄 한밤중에 어떻게 부추를 깎는다는 말이나?고 반문 했다. 그러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한다. 알고 보니 연다산 1리 주민들은 새벽 2시가 오전 10시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90여 농민들이 일제히 새벽에 약속한 듯이 부추밭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농협에서 서울 가락시장에 경매시키는 농산물 유통 차량이 오기 전에 부추를 묶어 실어야 한다. 그들은 부부사이에도 다룰 시간이 없다. 더욱이 이웃 농가에 놀러 갈 여유도 없고 간다 해도 서로 얘기할 틈이 없다. 그래

서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부추를 재배한다. 더욱이 부추 판매대금이 교하농협 통장으로 입금되도 찾을 시간이 없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한 관계로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관절병이 생겨 고통이 많다 한다.

나는 혼자 눈감고 생각한다. 진정한 애국자는 농민들이라고.....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원한다면 분골쇄신 열심히 일하겠다는 정치인들도 분명 부추재배 농민만큼 애국자가 아니리라.

「농민상담소장의 학회에의 건의」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시는 한국농촌지도학회에 일선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 농민 지도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함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9일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 교관 교육시 교수님의 강의는 무척 유익했습니다. 그 당시 제기된 문제점이지만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70년대 국가의 식량의 향상과 녹색혁명을 수행한 주역이지만 이제는 공무원 중에서 금력, 권력 없는 소외시 당하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1) 현장 대 농민지도보다 행정을 하는 행정직 공무원화 되었습니다. 2) 대 농민을 지도한 실질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3) 각종 호봉 등 봉급체계 부실로 직원들의 일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었습니다. 4) 상담소의 인력 부족(1인 근무)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해보니 어느 직 보다 보람있고 국민 식량을 조달하는 뜻에서도 무척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되오니 교수님께서 더욱 발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 12. 13